교만한 욕심쟁이의 전락한 변태욕심

(약1:12~27)

13.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4.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15.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16.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17.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18.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교만한 욕심쟁이의 전락한 변태욕심>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교만한 욕심쟁이의 전락한 변태욕심!
교만해서 욕심쟁이가 됐습니다.
근데 욕심을 부리는데, 그나마 욕심다운 욕심이 나오지 않고 이상한 변태욕심을 부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한 번 해봐요.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가 믿음보다 행위를 강조하는 책이다'라는 그런 논란을 늘 달고 다니는 야고보서의 본래의 취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욕심쟁이가 욕심을 부릴 때 전락한 변태욕심을 부린다'라는 제목으로 한 번 살펴봅니다.

여러분 다 기억을 하실 것이에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에게서 모든 재산을 다 받아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제 딴에는 뭔가 좀 큰 비즈니스를 잘해 보겠다고 하다가 실패해 가지고 돼지를 치는 사람으로 신분이 바뀌어 버리지 않습니까?

돼지를 치다가 하도 배가 고프니까, 돼지가 꿀꿀거리면서 먹고 있는 쥐엄 열매를 옆에서 군침 삼키면서 보고 있다가, 굶주린 배를 움켜잡고 그걸 좀 한 두개 먹어보니까 그냥 먹을 만해요, 배를 채우면 좋겠는데 그 쥐엄 열매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람이 먹는 음식이 아닌 돼지의 사료로 쓰이는 쥐엄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 이 탕자의 상태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또 마음이 낮아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는 겸손이거나 마음이 낮아진 것이 아니라, 전락한 것입니다.
전락한 거라는 건 여러분 뭐지요?
아래로 굴러 떨어진 겁니다.
도저히 용납될 수 없을 만큼 나쁜 상태나 타락한 상태로 굴러 떨어져 버린 것을 전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상한 욕심이 있는데,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 욕심의 뜻이 뭡니까? 욕심!
'자기 분수에 넘치는 무엇을 탐내고 누리고자 하는 마음' 이렇게 사전에는 정의가 돼있습니다.
자기 분수에 넘치는 무엇을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욕심이다.
근데 지금 탕자의 상태를 보면 돼지 쥐엄 열매를 욕심을 냅니다.
이거는 분수에 넘치게 탐내는 게 아니에요.
분수에 넘치는 무엇인가를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집을 나온 아들의 본래의 분수에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는 것을 탐내고 있는 욕심입니다.
가당치도 않는, 자기 본래의 분수를 생각하고 자기 본래의 신분과 지위를 생각하면, 걸맞지도 않고 턱도 없이 모자라는 말도 안 되는 것을 누리고자 하는 이상한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교만한 욕심과 전락한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둘 다, 교만한 욕심도 전락한 욕심도 공통점은 분수를 벗어난 것이에요.
그런데 교만한 욕심은 자기 분수에 넘치는 것을 바라는 욕심이고, 전락한 욕심이 있는데 이게 변태욕심이에요.
욕심 같지도 않은 욕심입니다.
자기 분수에는 턱도 없이 모자라는 것을 탐내고 있다 이겁니다.
이거는 전혀 겸손도 낮아짐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고, 겸손과 낮아짐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건 전락이라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배반이고, 반란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타락의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교만한 욕심은 뭘까요 여러분?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 아담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욕심을 부립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내가 만나는 존재에 대해서,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 '저건 좋다, 내게 좋을 것이다, 내게 나쁠 것이다'라는 것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거는 피조물로서 하나님만이 하셔야 되는 선악의 판단의 자리에 서겠다는 교만한 욕심을 부린 겁니다.
근데 이상하지요, 이 교만한 욕심을 부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존재차원에서 신분의 차원에서 교만한 욕심을 부려 선악을 판단하는 하나님처럼 되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바보 멍청이 팔푼이가 돼버린 거예요.
전락한 욕심쟁이들이 돼버렸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져 있는 자기 본래의 분수에 턱도 없이 모자라는 무엇인가를 욕심내는 변태욕심쟁이들이 돼버린 거예요.
어떤 면에서? 소유차원에서.
그리고 소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사회나 국가에서 허락하고 있는 내 재산을 갖고 있다,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는데, 진정한 소유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우리 마음이 비어 있는 상태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욕심이 잉태한다고 그러잖아요?
욕심이라는 건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분수에 맞지 않는, 분수에 넘치는 무엇을 바라는 마음, 이 마음이 잉태한다 그래요, 잉태.
우리 마음을 자궁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 진정한 의미에서의 소유란 무엇이냐 하면, 비어 있는 마음에 무엇인가를 채워 넣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소유의 차원에서 완전히 변태적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교만한 욕심을 부리는 바람에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나 스스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면서, 내 마음 비어 있는 공간에 채워 넣는다고 하는 것들이 다 돼지 쥐엄 열매요, 사도바울의 말을 빌리면 빌립보서에서 한 것처럼, 배설물들로 채워 넣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자기 분수에 턱 없이 모자라는 것들, 분수에서 벗어난 것은 맞지만 분수에 넘치는 것이 아니라, 분수에 모자라는 것들을 바라면서 살고 있는, 이상한 변태욕심쟁이들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에요.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원래 피조물의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선악의 판단만을 받아서 살았으면, 그 빈 마음속에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주시려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이라고 하는 피조물에게 합당한 분수에 맞는 소유물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근데 본래 분수에 맞는 하나님 자신을 제쳐버린 거예요.
교만한 욕심쟁이가 되면서 하나님과 결별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분수에 맞지 않는 무엇을 마음 안으로 채워 넣기를 원했는데, 그만 전락한 분수에 맞지 않음! 하아~! 정말 쉽게 말하면, 꼴 같지도 않은 것들을 마음에 채워 넣기 위해서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소유가 되도록 원래 그런 분수를 받고 태어난 이 인간들이, 무엇으로 마음을 채워 넣으면 하나님을 대치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비교하면, 마음에 집어넣을 것으로는 다 배설물이에요, 다 배설물.
오물입니다, 오물! 오물을 마음속에 담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오늘 본문이 왜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자! 이 야고보서는, 말씀드린 대로 로마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 중에서, 기독교인으로 전향한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야고보가 보고 있는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지 한 20년 정도가 흐른 상태에요, 20년이 채 못 됩니다마는 그 기간이 지나는 동안에,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복음 사건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야기들이 팽배하게 되면서, 삶의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행위가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고보 장로가 마음의 초점을 모으고 있는 지점이 어디냐 하면 행위라고 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말이 많은 거예요, 야고보서가 진짜 성경에 포함 될 수 있는 책이냐 아니야 말이 많고, 루터 같은 분은 지푸라기 복음서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폄하하는 그런 일도 벌어지기도 하고 합니다마는, 오늘 본문이 하여간 야고보서를 이해하기 위해 중요한 본문이에요.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읽어갈 때 염두에 둬야 될 아주 중요한 점이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행위가 말씀대로 나오지 않는 상태를 지금 염두에 두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도 시험 얘기가 나오고, 13절에도 시험 얘기가 나오는데, 이 시험이 달라요.
12절의 시험은 하나님의 테스트를 말합니다, 시련! 시련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13절의 시험은 헬라어 단어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시험이라고 번역하는 거보다는 유혹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받을 때에'라는 얘기는, '유혹을 받아서 우리가 행위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에’ 이렇게 번역하면 뜻을 올바르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됩니다.
유혹을 받아가지고 범죄를 저지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았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죄를 짓도록 이끄시지 않는 분이다’라는 얘기에요.
말할 필요가 없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유혹하시는 바람에, 아니면 나를 유혹에 빠지도록 밀어 넣으시는 바람에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을 입으로 부르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행동을 규정하는 모든 말씀들과 나의 행동을 비교했을 때, 내 행동이 성경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데도 아~무런 자각증상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편안하게 살고 있는 모든 상태가 바로, 내가 지금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유혹으로 밀어 넣으셨기 때문에, 유혹에 빠지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상태라는 겁니다.
성경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 성경말씀과 나의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상태인데, 그런데도 이게 문제가 있구나, 라는 자각증세가 없는 상태, 이 상태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죄를 짓게 하고 계신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야고보 장로님이 보고 계시는, 우리가 이렇게 행동을 말씀대로 하지 못하고 범죄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끊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연결이 돼있다 그러면, 성경말씀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들과 내 행동이 다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다르게 나온다면, 우리 마음이 인격적으로 영이신 하나님과 지금 끊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이키라는 얘기지요, 돌이키라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연결돼 있지 않으면 그냥 중립 상태에 우리 마음이 존재하면서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욕심의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욕심의 상태가 되어서, 지금 빈 자궁과 같이 생겨 있는 마음속에다가 뭘 잉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과는 다른 행동들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욕심으로 뭘 잉태합니까?
자! 교만한 욕심을 부리는 바람에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과 끊어졌어요.

마귀에게 속아 가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말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게 주어지고 내가 만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게 좋겠다, 나쁘겠다, 스스로 판단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끊어져 버렸습니다.
교만한 욕심의 결과에요.
분수에 넘치는 욕심을 부린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비어 있으니까 욕구가 생깁니다, 그 마음을 채워 넣어요.
욕구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욕구가 욕심이 된다는 거예요.
욕심이 된다는 게 뭡니까?
분수에 맞지 않는, 분수에서 벗어나는 것을 원하는 게 욕심이라는 말이에요.
분수에 맞는 것을 원하는 것은 바람직한 욕구입니다.
그 욕구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비게 만들어 주심으로써 어쩔 수없이, 아니 은혜로서 축복으로서 주어진 상태에요, 욕구자체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근데 그 욕구가, 분수에 맞지 않는 걸 바라게 되면 욕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뭘 원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과 끊어져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것들을 마음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욕구를 갖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욕심입니다.
내 마음 안에 내 가족이 들어왔잖아요? 그게 욕심이에요.
내 마음 안에 들어 놓아야 될 게 아니거든요, 원래 피조물로서의 내게 할당 되어진 분수에 의하면, 분수에 맞는 내 마음 안에 들여야 할 소유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근데 교만한 욕심으로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하나님과 끊어지고 나니까, 빈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데 분수에 맞지 않는 것들을 빨아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욕심이에요.
근데 다 전락한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다~ 배설물이에요, 배설물이라는 건 마음에 들어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배설물을 몸에 담고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변비라고 하지요, 다 빼내야 돼요, 계속 빼내야 되는데, 그렇게 마음 바깥에 존재해야 될 것들을 자꾸 마음 안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걸로 채우면 행복할 거라고, 그걸로 채우면 좋을 거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자식을 통해서 마음이 배부를 거라고 믿는 것, 이게 바로 돼지 쥐엄 열매를 찾는 겁니다.
돼지 쥐엄 열매를 탐내는 거예요.
전락한 욕심이에요, 분수에 맞지 않는 그러나 넘치는 것이 아니라, 모자라는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모자라는 욕심, 턱도 없이 모자라요 자기 본래 분수에.

그래서 모든 행동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행동으로 나타날 텐데, 우리 마음속에 욕심을 부려 가지고 전락한 욕심 변태욕심으로 분수에 맞지도 않고 분수에 턱도 없이 모자라는 것들을 마음속에 집어넣음으로써, 우리의 행동이 범죄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지 마라, 돈을 사랑함이 일 만 악의 뿌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돈이라는 배설물을 집어넣고는,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그 배설물로부터 나오는 행동과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 자각증세가 없어요, 이게 잘못 됐다고 하는 자각증세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자각증세가 없는 상태에 대해서, 야고보가 민감하게 알레르기반응을 일으키면서 쓴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행동이 안 나타나면, 행동이 성경말씀과 어긋나면, 마음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음을 알아야지, 그러므로 믿는 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야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존재와 내 마음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서, 온갖 범죄적인 행동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그렇게 멀쩡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됐잖아요?
이 말을 원래대로 바꾸자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욕심이 뭘 잉태하는 거예요?
분수에서 벗어난 것들 중에서 어떤 것? 가족이라든지, 이 세상에서 이 세상 모든 게 다 잉태되는 것들이에요, 그게 다 욕심이 잉태하는 겁니다.

그 반대는 뭡니까?
우리 마음의 욕구가 하나님을 잉태하는 겁니다.
주님을 잉태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아래 내려가다 보면 '마음에 심긴 말씀, 마음에 심긴 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바꿔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라 그래요.
그 말씀과 도가 뭡니까?
십자가복음 말씀이에요.
그 십자가 복음을 잉태하면 죄를 낳는 게 아니라 의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 것 대신에, '의를 낳고 의가 장성한즉 생명을 낳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이, 이 말이 참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17절에 '각양 좋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아! 야고보서가 그렇게 간단하게 뭐 행위를 강조하는 책이다 이렇게 말 할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깊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뭘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을 왜 부립니까? 욕심을 부려서 잉태하는 것, 이게 속는 거라는 거예요.
한 마디로 비어 있는 마음을, '내가 내 가족을 잘 보살핌으로써 홈 스위트 홈을 만듦으로써 내 마음을 채울 수 있을 거야!'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부강해지면 내 마음이 온전하게 채워질 수 있다, 이거 속지 말라는 거예요.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16강에 진출하면 내 마음이 만족할 수 있다, 속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사업이 잘 돼서 돈이 잘 벌리면 내 마음이 행복하고 만족할 거다, 왜 속느냐는 거예요 바보들처럼,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같은 얘기 아닙니까?
정말 내 마음에 진정으로 채워서 행복하게 하고 기쁠 수 있게 하는 좋은 것, 선악을 판단을 할 때 진짜 좋은 것, 다~ 하늘에서만 내려온다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자꾸 마음속에 채우려고 하는 것은, 돼지 쥐엄 열매를 찾는 것처럼 교만한 욕심을 부린 결과로, 전락한 욕심을 부리고 있는 바보 멍청이들처럼, 자기 분수에는 맞지도 않고 원래 하나님을 갖도록 되어 있는 마음에다가, 하나님과는 비교도 안 되는 피조물 중에 엉뚱한 것들을 채워 넣음으로써 만족하겠다고 하는, 못난 바보들 변태욕심쟁이들이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바보욕심쟁이, 멍청한 욕심쟁이, 변태욕심쟁이들이 되었습니까?
분수에 넘치는 욕심도 부리지 못해요, 분수에 모자라는 욕심을 부리는 바보들이 돼버렸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속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는 돈만 벌리면 될 거 같아, 될 거 같아.
내 자식이 서울대만 들어가면 될 거 같아.
행복과 기쁨이 주어질 거 같아요.
완전히 속고 있다는 겁니다.

오직 빛의 아버지라 그랬어요, 빛의 아버지로부터.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빛이라는 건 해와 달과 별들을 말해요, 하늘에 떠 있는 빛 발광체들을.
그러니까 이 세상 위에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 빛들 더 위에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 세상에는 없고, 없고,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채워서 기쁠 수 있는 건.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것들로 마음을 채워 가지고 잉태시켜 가지고, 소위 말해서 사업을 배가지고, 마음의 배 속에 배가지고 사업이 잘되게 해서 기쁘겠다고 하다 보니까, 온갖 범죄가 다 저질러지고, 돈을 사랑하면서 나오는 모든 말과 행동이 다 범죄라 이겁니다, 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그 하나님은 이 세상과는 관계도 없는 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변함과 회전하는 그림자, 변함과 그림자가 이 세상의 특성이라고 야고보 장로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리학의 원조에요 그러니까, 물리학의 원조.
빛이 있고 그림자가 생기는 게 이 세상 차원에서의 얘기입니다.
변하는 것이 이 세상 차원의 얘기입니다, 시간과 공간에 의해서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시공간의 세계에서 존재하지 않으시니까, 이 시공간의 세계에서 뭔가 좋은 것을 마음에 채워 넣을 생각을 하지 말고,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들면 얼른 깨달아라.
내가 이 세상에서 요것만 하면 기쁠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이 들게 되면 '아! 내가 속고 있는 거구나.'
너~무 너무 괴로워, 이 세상에서 일이 안 이루어져서 너무너무 괴롭잖아요?
그 반대는 그것이 이루어지면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잖아요?
괴로울 때도 생각하라 속는다는 것을, 기쁠 때도 생각하라 속는다는 것을.
오직 내 마음에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늘로부터만, 빛들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과 별들, 그 위에 있는, 세상과는 아무상관도 없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질 수 있다.

그걸 모르고 자꾸 세상에서 전락한 분수에 넘치는 것도 욕심을 부리지 못하는 주제들이, 분수에 모자라는 이 세상 것들을 마음속에 담아서 기뻐하려고 하다보니까 자꾸 범죄 행위가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교만한 욕심을 부리므로 전락한 욕심을 부리며 소유하겠노라 하다가, 말씀에서 한없이 어긋나는 행동들만 하며 사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욕심으로부터의 탈출이 십자가를 통하여 가능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